

OP-15
구연

Mesh Diagram을 이용한 악교정 수술환자의 진단 및 수술계획 수립

김일곤 · 윤영주 · 김광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교정환자를 진단할 때, 이용되는 대부분의 계측은 길이나 각도 등이 절대적인 평균치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의 여부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편차가 큰 계측요소가 환자의 골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진단을 위한 분석법들은 이러한 산술적 계산이 필요하므로, 각 계측요소를 계산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지식이 요구된다. 더구나, 각 분석방법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각 연령이 갖는 평균치로 제작한 주형을 통해 시각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다양한 얼굴의 크기와 형태를 무시하고 한가지 주형에 대입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산술적인 분석과 한가지 주형을 통한 진단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별 주형 제작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mesh diagram이 소개되었다. 환자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형을 제작하여 진단하는 방법은 특히 악교정 수술환자의 경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존재하는지 더 쉽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다분히 주관적인 심미적 판단에 의존하는 양악수술과 이부성형술시의 수술량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자는 mesh diagram방법을 악교정 수술환자에게 적용하여 수술계획을 수립하고, 수술결과를 평가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기에 증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OP-16
구연

수직피개의 결정요인과 수직피개 심도지수(ODI)의 상호관계

양 상 덕
한국 악교합 교정연구회

전치부 수직피개(overbite)는 하악평면, 구개평면 또한 AB 평면의 경사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으며, ODI(overbite depth indicator)는 overbite의 세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FMA, PPA, FABA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ODI와 세 결정요인들과의 상호관계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관계계수를 산출하였다.

ODI 정상수치를 나타내는 관계식에 산출된 관계계수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ODI\ norm = 85^\circ - 0.5\ PMA - (1.08 - 0.01\ FMA)(FABA - 81^\circ)$ 라는 식이 도출된다.

이는 ODI 정상수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PMA와 FABA에 의해 결정되는, 다시말해서 개개인의 골격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출한 ODI 정상수치(Individualized ODI norm) 개념의 임상적 적용과 진단학적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OP-17
구연

Use of high pull headgear and its effects in extraction cases

진 근 호
진근호 치과의원

headgear는 Kingsley(1880)에 의해 처음으로 II급 부정교합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며, Kloehn(1947)에 의해 확대 발전된 교정치료의 대표적인 구외장치이다.